

### Ⅲ. 보험산업 현황

#### 1. 주요지표 동향

##### 가. 수입보험료

○ FY2003 보험산업은 시장 포화와 내수 부진의 여파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가 FY200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손해보험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성장률을 기록함.

- 2004년 4~8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방카슈랑스 시행 후 일시납 보험의 증가와 노후보장 니즈에 대응한 생존보험의 급성장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9.3% 증가함.

- FY200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보험을 제외한 대부분 종목의 저성장으로 인해 3.7% 성장에 그친 반면, 2004년 4~8월에는 전년도 저성장에 대한 상대적 성장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9.0% 성장하였음.

<표 III-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2004.4~8
생명보험	467,554	516,538	473,643	490,668	503,925	203,995
	0.8	10.5	-8.3	3.6	2.7	9.3
손해보험	148,149	168,617	186,959	206,129	213,782	93,801
	3.9	13.8	10.9	10.3	3.7	9.0
합 계	615,703	685,155	660,602	696,797	717,707	297,796
	1.5	11.3	-3.6	5.5	3.0	9.2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 부수사업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나. 총자산

- FY2003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보험료 수입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연중 금융시장의 상승세에 따른 투자이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13.3% 증가한 226조 1,844억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187조 3,615억원으로 수입보험료의 소폭 증가와 연중 금융시장의 상승세에 따른 투자이익 증가로 전년대비 14.1% 성장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원수보험료의 성장둔화와 발생손해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이익의 증가로 전년대비 9.8% 증가한 38조 8,229억원을 나타냄.
- 2004년 8월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생명보험의 보험수지차 확대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13.2% 증가한 236조 5,815억원을 기록함.

**<표 III-2> 생·손보사 총자산 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2004. 8
생명보험	1,102,953	1,207,300	1,430,340	1,642,225	1,873,615	1,963,439
	19.5	9.5	18.5	14.8	14.1	14.3
손해보험	264,708	280,490	327,267	353,683	388,229	402,376
	18.0	6.0	16.7	8.1	9.8	8.7
합 계	1,367,661	1,487,790	1,757,607	1,995,908	2,261,844	2,365,815
	19.2	8.8	18.1	13.6	13.3	13.2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 생명보험

### 가. 수입보험료

- FY200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50조 3,925억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으나, CY2003 경상 GDP 성장률이 5.4%인 것을 감안할 때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조 3,995억원으로서 전년 동기간 대비 9.3% 증가하였고, 이 수치는 동 기간의 경상가격 GDP 성장률인 8.7%를 상회함.
  - 동 기간에 대한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93.8%를 차지하는 개인보험은 전년 동기간 대비 11.0% 증가했으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중 6.2%를 차지하는 단체보험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9% 감소함.

<표 III-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1)

구 분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2004.4~8
국내 경제	경상GDP (10억원) <sup>1)</sup>	529,500	578,665	622,123	684,264	721,346	370,972
	증 가 율 <sup>2)</sup>	9.4	9.3	7.5	10.0	5.4	8.7 <sup>3)</sup>
생보 산업	보험료(억원)	467,554	516,538	473,643	490,668	503,925	203,995
	증 가 율 <sup>2)</sup>	0.8	10.5	-8.3	3.6	2.7	9.3

주 : 1) GDP는 CY2000 명목가격 기준을 따르며, 2003년 이후는 잠정 수치임.

2) 전년 또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3) CY2004 상반기 경상 경제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및 [www.bok.or.kr](http://www.bok.or.kr).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III-4>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 (II)**

(단위 : 억원, %)

구 분		초회보험료		초년도보험료		2차년도 이후		합 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FY1999	개인	65,024	-39.1	81,430	2.0	169,628	16.5	316,082	-4.3
	단체	98,156	21.2	16,275	38.9	37,041	-9.2	151,473	13.4
	전체	163,180	- 9.7	97,705	0.9	206,669	10.9	467,554	0.8
FY2000	개인	114,739	89.1	92,618	6.7	191,363	12.8	398,721	26.1
	단체	72,999	-25.6	17,113	5.1	27,706	-25.2	117,817	-22.2
	전체	187,738	15.0	109,731	12.3	219,069	6.0	516,538	10.5
FY2001	개인	30,495	-73.4	109,520	18.3	237,784	24.3	377,799	-5.2
	단체	49,945	-31.6	19,078	11.5	26,821	-3.2	95,844	-18.7
	전체	80,440	-57.2	128,598	17.2	264,605	20.8	473,643	-8.3
FY2002	개인	29,688	-2.5	100,710	-8.0	285,095	19.9	415,493	10.0
	단체	24,980	-50.0	18,946	-0.9	31,248	16.5	75,175	-21.6
	전체	54,668	-32.0	119,656	-7.0	316,343	19.6	490,668	3.6
FY2003	개인	53,625	80.6	91,438	-9.2	302,098	6.0	447,161	7.6
	단체	10,758	-56.9	8,476	-55.3	37,530	20.1	56,764	-24.5
	전체	64,383	17.8	99,913	-16.5	339,629	7.4	503,925	2.7
2004. 4~8	개인	19,599	72.1	41,343	9.0	130,330	5.9	191,272	11.0
	단체	2,447	-11.1	1,461	-44.2	8,815	-1.2	12,723	-10.9
	전체	22,046	55.9	42,804	5.6	139,145	5.4	203,995	9.3

주 : 1) 증가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비율임.

2) 단체보험은 FY1999부터 특별계정이 포함됨(이하 동일).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1)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종목별 구성비는 사망보험이 46.0%, 생존보험 23.9%, 생사혼합보험 18.8%, 단체보험 11.3%인 것으로 나타남.
  -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의 구성비는 전년에 비해 증가세이며, 생사혼합보험, 기타 단체보험, 퇴직보험의 구성비는 하락세를 보임.
  - 사망보험의 증가는 변액보험을 포함한 종신보험의 증가에 기인하며, 생존보험의 증가는 노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대비 니즈를 반영함.
- 2004년 4~8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종목별 구성비는 FY2003과 마찬가지로 사망보험과 생존보험은 증가한 반면, 생사혼합 및 단체보험은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이며,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동 기간 중 사망보험의 점유율은 전체의 50%를 넘는 51.8%, 생존보험은 25.1%, 생사혼합보험은 16.9%, 단체보험은 6.2%를 나타냄.

<표 III-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분	생존	사망	생사혼합	개인계	퇴직	기타단체	단체계
FY2001	15.8	36.8	27.1	79.8	12.2	8.0	20.2
FY2002	18.6	43.5	22.5	84.7	9.7	5.6	15.3
FY2003	23.9	46.0	18.8	88.7	7.7	3.6	11.3
2004.4~8	25.1	51.8	16.9	93.8	2.8	3.5	6.2

&lt;표 III-6&gt;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2004.4~8	
개 인 보 험	생존보험	97,808	108,661	74,955	91,424	120,375	51,117
		-4.2	11.1	-31.0	22.0	31.6	26.0
	사망보험	100,461	125,393	174,334	213,677	231,844	105,679
		26.8	24.8	39.0	22.6	8.5	13.0
	생사혼합	117,813	164,667	128,510	110,392	94,942	34,476
	-20.9	39.8	-22.0	-14.1	-14.0	- 9.8	
소 계	316,002	398,721	377,799	415,493	447,161	191,272	
	-4.3	26.1	-5.2	10.0	7.6	11.0	
기타단체	100,864	67,985	38,112	27,393	18,013	7,105	
	-24.5	-32.6	-43.9	-28.1	-34.2	-1.6	
퇴직보험	50,609	49,832	57,733	47,781	38,751	5,618	
	-	-1.5	15.9	-17.2	-18.9	-20.5	
단체보험계	151,473	117,817	95,844	75,175	56,764	12,723	
	13.4	-22.2	-18.7	-21.6	-24.5	-10.9	
합계	467,554	516,538	473,643	490,668	503,925	203,995	
	0.8	10.5	-8.3	3.6	2.7	9.3	

주 : 하단의 수치는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FY2003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7.6% 증가한 44조 7,161억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3/4분기 급격히 증가한 방카슈랑스채널 실적을 제외할 경우 1.7% 증가에 그쳐 최근 저성장기조가 반영됨.
- 사망보험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23조 1,844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었으나, 이는 FY2002 증가율인 22.6%와 비교할 경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임.
- 방카슈랑스 허용상품이 포함된 생존보험은 세제지원 축소를 앞둔

3/4분기 수요증가와 더불어 방카슈랑스의 일시납 연금보험 급증으로 전년 대비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단기 저축성보험이 대부분인 생사혼합보험은 단기 금리관리에 부담을 느껴온 보험회사의 지속적 판매축소로 말미암아 3/4분기의 일시적인 호조를 제외하고는 감소(-14.0%)했으며, 방카슈랑스 실적을 제외할 경우 감소폭은 더욱 커짐(-20.6%).
  - 단체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FY2002에 전년 대비 21.6%, FY2003에 24.5%의 큰 폭 감소세를 지속해왔으며, 이는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라 각 기업들의 후생복지 차원의 일반단체보험의 가입 감소와(-34.2%), 퇴직보험의 수요 감소(-18.9%)에 기인함.
- 2004년 4~8월 중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0% 증가한 19조 1,272억원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한 1조 2,723억에 그침.
- 사망보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종신보험은 초회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23.4% 감소하는 등 성장 여력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나, 종신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137.4% 증가하였음.
  - FY2004 1/4분기에 수요를 회복한 방카슈랑스채널 실적을 제외(초회보험료)할 경우 개인보험은 5.8% 증가에 그치며, 생존보험은 약 8.1% 증가에 그침.

## 2)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03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상위사의 비중이 연중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은 손익위주의 경영으로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02보다 3.8%p 감소한 72.0%을 기록함.
  -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방카슈랑스 도입 후 초회보험료의 급증과 텔레마케팅·온라인·홈쇼핑 등 새로운 판매채널을 통한 적극적 판매전략으로 FY2002보다 각각 0.7%p, 3.1%p 상승한 14.4%, 13.6%로 나타남.
- 2004 4~8월 중 시장점유율은 상위사의 감소세가 지속된 반면 외국사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상위 3사의 점유율은 외국사의 시장 확대로 지난 동기 대비 4.8%p가 감소한 69.2%임.
  - 외국사는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사들의 선전과 우량 외국사의 견실한 성장으로 점유율 증가가 지속됨.

### <표 III-7> 생명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연 도	상위 3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사
FY1999	75.0	20.4	4.6
FY2000	80.9	13.4	5.7
FY2001	78.0	14.0	8.0
FY2002	75.8	13.7	10.5
FY2003	72.0	14.4	13.6
2004. 4~8	69.2	16.2	14.5

주 : 외국사는 지분인수 기준일로 구분하였음. FY2003 현재 알리안츠, 프르덴셜, ING, 라이나, AIG, 메트라이프, 프랑스, 뉴욕, PCA, 카디프, SH&C가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나. 계약현황

### 1) 신계약

- FY2003 신계약액은 전 종목의 계약액 감소로 전체적으로 5.1%가 감소함.
  - 생존보험의 신계약액은 저축성보험에 대한 소극적 판매 및 연금보험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7.5%의 감소를 보임.
  - 사망보험은 가장 비중이 높은 종신보험의 경우 24.8% 감소했으며, 사망보험 전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2.2% 감소함.
  - 생사혼합보험의 신계약액은 FY2001 이후 저축성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축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5.4% 감소하였으나, 감소율은 크게 개선됨.
  - 단체보험은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른 기업의 저축성 단체보험 구매력 저하, 퇴직보험의 수요 위축 등으로 신계약액이 전년대비 7.3% 감소하였음.
  
- 2004년 8월말까지의 생명보험 신계약액을 보면 전종목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러 종목 중 생존보험의 증가(51.4%)가 가장 컸으며 금액기준으로 생명보험 전체 신계약액은 8.7% 증가하였음.
  - 생존보험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연금인 44.8%, 개인연금이 100.2%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51.4% 증가함.
  - 사망보험 신계약액은 4.2% 증가함으로써 전년까지의 감소추세가 증가세로 반전됨.

- 사망보험의 신계약이 여전히 개인보험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함  
(사망보험 점유율 2003년 8월말 88.5% → 2004년 8월말 85.5%).

### <표 III-8> 생명보험 신계약액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	단체보험	합 계
FY1999	300,428	1,600,990	393,832	360,042	2,656,196
	-39.7	-4.4	1.6	9.2	-8.1
FY2000	383,102	1,813,111	559,759	269,272	3,025,244
	27.5	13.2	42.1	-25.4	13.9
FY2001	255,110	2,901,231	224,250	208,931	3,589,522
	-33.4	60.0	-59.9	-22.4	18.7
FY2002	318,493	2,597,024	167,007	190,352	3,272,876
	24.8	-10.5	-25.5	-8.9	-8.8
FY2003	230,956	2,540,367	157,970	176,368	3,105,661
	-27.5	-2.2	-5.4	-7.3	-5.1
2004.4~8	112,569	1,029,805	62,320	79,632	1,284,326
	51.4	4.2	15.2	21.8	8.7

주 : 하단의 수치는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2) 보유계약

- FY2003 생명보험 보유계약액은 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전년 대비 6.0% 증가한 1,201조원을 기록하였으며, 2004년 8월말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9.8% 증가한 1,244조원을 기록하였음.

- 2004년 8월말 현재 보유계약액 기준 사망보험의 비중은 지속적인 계약 유입에 따라 보유계약액 증가와 여타 보험종목의 비중 감소로 전년대비 2.1%p 증가한 77.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줌.
  - 동 기간 중생존보험의 보유계약액 비중은 신계약의 큰 폭 증가(51.4%)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 보유계약의 비중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0.8%p 감소한 12.3%를 차지함.
  - 생사혼합보험의 신계약액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사망보험 보유계약의 비중 증가로 생사혼합보험의 보유계약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0%p 감소한 5.7%를 차지함.
  - 단체보험의 보유계약액 비중은 신계약의 큰 폭 증가에도(21.8%) 불구하고 사망보험 보유계약의 비중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0.2%p 감소한 4.6%를 차지함.

&lt;표 III-9&gt; 생명보험 보유계약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	단체보험	합 계
FY1999	금 액	1,470,304	4,161,764	775,737	658,158	7,065,963
	증가율	-4.0	25.2	16.8	12.6	15.8
	비 중	20.8	58.9	11.0	9.3	100.0
FY2000	금 액	1,535,770	5,125,671	1,034,540	592,352	8,288,333
	증가율	4.5	23.2	33.4	-10.0	17.3
	비 중	18.5	61.8	12.5	7.1	100.0
FY2001	금 액	1,538,750	7,067,857	970,612	579,688	10,156,906
	증가율	0.2	37.9	-6.2	-2.1	22.5
	비 중	15.1	69.6	9.6	5.7	100.0
FY2002	금 액	1,590,804	8,305,323	862,663	578,618	11,337,408
	증가율	3.4	17.5	-11.1	-0.2	11.6
	비 중	14.0	73.3	7.6	5.1	100.0
FY2003	금 액	1,511,042	9,214,339	738,275	548,680	12,012,337
	증가율	-5.0	10.9	-14.4	-5.2	6.0
	비 중	12.6	76.7	6.1	4.6	100.0
2004. 4~8	금 액	1,533,603	9,621,890	75,584	575,724	12,436,801
	증가율	3.2	12.8	-7.5	5.8	9.8
	비 중	12.3	77.4	5.7	4.6	100.0

주 : 증가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비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다. 수지현황

### 1) 지급보험금

- FY2003 지급보험금은 여러 종목 중 생존보험이 감소(-20.0%)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종목이 전년 대비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34.4% 증가함.
  - FY2003 지급보험금은 종신보험의 보험금 지급 증가(93.3%)를 위시한 무배당 보장성보험의 지급보험금 증가(45.7%) 및 슈퍼재테크 보험의 만기도래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개인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하여 전체 보험금지급률을 상승시킴.
  - 보험종목별로는 사망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전년 대비 각각 20.5%, 52.8% 증가했으며 퇴직보험을 포함한 단체보험은 26.4% 증가함.
- 2004년 4~8월 중 지급보험금은 사망보험(3.1% 증가)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27.9%가 감소하였으며, 30조 25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됨.
  - 동 기간 중 개인보험 지급보험금은 생존보험과 생사혼합보험이 각각 40.9%, 45.6% 감소함에 따라 37.2% 감소한 1조 8,430억원을 기록함.
  - 단체보험 지급보험금은 단체보험수요의 감소와 퇴직보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한 1조 1,826억원을 기록함.

## &lt;표 III-10&gt;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합 계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FY1999	개인	31,396	85.4	179,579	-25.4	4,894	-22.1	215,870	-18.2
	단체	45,406	-31.7	120,640	-2.1	1,134	-59.8	167,180	-13.1
	전체	76,802	-7.9	300,219	-17.5	6,028	-33.8	383,049	-16.1
FY2000	개인	52,470	67.1	167,350	-6.8	4,731	-3.3	224,551	4.0
	단체	42,353	-6.7	124,202	3.0	1,364	20.3	167,919	0.4
	전체	94,823	23.5	291,551	-2.9	6,096	1.1	392,471	2.5
FY2001	개인	43,656	-16.8	178,787	6.8	4,854	2.6	227,297	1.2
	단체	31,646	-25.3	83,914	-32.4	671	-50.8	116,231	-30.8
	전체	75,302	-20.6	262,701	-9.9	5,525	-9.4	343,528	-12.5
FY2002	개인	43,219	-1.0	165,246	-7.6	3,732	-23.1	212,197	-6.6
	단체	26,309	-16.9	55,404	-34.0	270	-59.7	81,983	-29.5
	전체	69,528	-7.7	220,650	-16.0	4,002	-27.6	294,180	-14.4
FY2003	개인	60,170	39.2	190,849	15.5	4,535	21.5	255,554	20.4
	단체	33,257	26.4	28,270	-49.0	313	16.0	61,840	-24.6
	전체	93,427	34.4	219,119	-0.7	4,848	21.1	317,394	7.9
2004. 4~8	개인	18,430	-37.2	83,268	9.3	1,934	7.7	103,632	-3.5
	단체	11,826	-6.2	5,889	-43.8	187	57.7	17,901	-22.9
	전체	30,256	-27.9	89,157	2.9	2,121	10.8	121,533	-6.9

주 : 증가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비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2) 사업비 현황

- FY2003 이연전 실제사업비 규모는 전년에 비해 1.2% 소폭 증가한 8조 6,202억원을 기록함으로써 FY2000이후 사업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줌(FY2000 15.4%→ FY2001 8.1%→ FY2002 8.8%→

FY2003 1.2%).

- FY2003의 실제사업비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생명보험 모든 종목의 신계약액이 감소한 것에 기인함.
- 신계약비를 이연처리할 경우 사업비규모는 4조 7,1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11> 생명보험 실제사업비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신계약비	유 지 비	수 금 비	이연 신계약비	사업비계	사업비율
FY1999	43,578	14,536	4,597	-23,979	38,732	8.3
	-6.9	-2.7	7.4	-47.3	-22.1	-2.4
FY2000	50,953	15,694	5,747	-30,987	41,407	8.0
	16.9	8.0	25.0	-29.2	6.9	-0.3
FY2001	56,484	16,680	5,104	-38,963	39,306	8.3
	10.9	6.3	-11.2	-25.7	-5.1	0.3
FY2002	60,472	20,261	4,458	-42,498	42,693	8.7
	7.1	21.5	-12.7	-9.1	8.6	0.4
FY2003	62,048	20,981	3,172	-39,039	47,163	9.4
	2.6	3.6	-28.8	8.1	10.5	0.7
2004.4~8	27,862	8,006	1,141	-7,951	29,058	14.2
	17.3	4.1	-9.2	-15.8	12.5	0.4

주 : 1) 사업비계 = 신계약비 + 유지비 + 수금비 + 이연신계약비  
 2) 하단의 수치는 전년 또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 3) 수지차

- FY2003 당기손익은 투자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이익

의 감소로 큰 폭(43.9%)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1조 2,446억원 감소한 1조 5,874억원을 시현함.

- 보험영업이익은 종신보험 등 사망보험의 지급보험금 증가와 종신보험의 판매에 따른 신계약비상각이 크게 증가하면서 손익규모가 큰 폭(18.4%)으로 축소됨.
  - 투자영업이익은 회계기간중 증권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투자영업수익이 개선되고 영업비용의 소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14.9% 증가한 9조 4,567억원의 흑자를 기록함.
  - 또한, 일부 대형사들의 상장지연에 따른 법인세 및 가산세납부 등으로 기타수지가 크게 악화되면서 수익성을 악화시킴.
- 2004년 8월말 현재 당기순이익(잠정치)은 보험영업수지와 투자영업수지가 모두 증가하고 기타 수지의 적자는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37.0% 증가한 4조 8,748억원을 기록함.
- 동 기간 중 보험영업수지는 생존보험을 위시한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가 증가한 반면 지급보험금이 감소하면서 크게 증가(67.1%)함.
  - 동 기간 중 투자영업수지는 투자영업수익이 개선되고 영업비용이 소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18.7% 증가한 4조 6,235억원의 흑자를 기록함.



<표 III-12> 생명보험 수지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보험수지차	총수지차	당기순이익
FY1999	21,794	43,598	-9,808
FY2000	51,673	80,996	-6,085
FY2001	51,846	121,079	17,228
FY2002	111,297	195,882	28,282
FY2003	135,429	172,158	15,874
2004. 4~8	45,453	91,468	48,748

주 : 1) 보험수지차는 특별계정을 포함함.

2) 보험수지차 = 수입보험료 - 지급보험금 - 사업비(신계약·유지·수급비)

3) 총수지차 및 당기순이익은 일반계정임.

4) 총수지차 = 보험손익 + 투자손익 + 기타손익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동향』,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2004. 10.

라. 자산운용 현황

1) 총자산 규모

○ FY2003 생명보험회사 총자산 규모는 금융시장의 상승세에 힘입어 투자 이익이 증대하여 전년에 이어 14.1% 성장한 187조 3,615억원을 기록함.

- 2004년 8월말 총자산 규모는 최근의 수입보험료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4.3% 증가한 196조 3,439억원을 시현하였음.

&lt;표 III-13&gt; 생명보험 자산운용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총 자 산	운용자산*	자산운용수익*	자산운용수익률(%)	
				총 자 산*	운용자산
FY1999	1,102,953	951,314	106,073	12.1	12.7
FY2000	1,207,300	998,133	83,152	8.5	8.9
FY2001	1,430,340	1,164,981	92,351	8.5	8.9
FY2002	1,642,225	1,326,366	105,700	8.5	8.9
FY2003	1,873,615	1,520,232	118,707	8.3	8.7
2004. 4-8	1,963,439	1,603,507	53,876	8.1	8.4

주 : \* 표시는 일반계정의 실적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 FY2003 생명보험 산업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증시활황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등 경기회복지연의 영향으로 저금리가 지속되어 전년 대비 0.2%p 감소한 8.7%를 기록함.

- 2004년 4~8월 자산운용수익률은 전년에 이어 저금리 추세 지속과 경기부진 등의 영향으로 8.4%에 그쳤음.

## 2)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 FY2003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인 이자수입 위주의 자산운용에 따른 채권 보유규모의 증가와 증시활황에 힘입어 주식 보유규모가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냈음.

- 반면, 대출채권은 가계부실 심화에 따른 신용리스크 확대에 보유 비중을 계속 축소하고 있는 실정임.

- 2004년 8월말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는 유가증권이 총자산의 52.5%로

전년말 대비 2.0%p 증가하였으며, 대출채권은 23.1%로 1.0%p 감소하였음.

- 이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안정적인 이자수익 위주의 채권 투자 확대와 가계부채 심화 등 신용불안 확대의 영향으로 대출채권의 보유 비중을 축소했기 때문임.

**<표 III-14> 생명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단위 : 십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2004. 8	
운용 자산	현·예금	5,222 4.7	3,701 3.1	2,684 1.9	3,256 2.0	3,180 1.7	3,019 1.5
	유가증권	44,946 40.8	48,271 40.0	63,865 44.6	76,797 46.8	94,665 50.5	103,117 52.5
	- 채권	16,893 15.3	24,937 20.7	36,356 25.4	48,906 29.8	57,538 30.7	66,083 33.6
	- 주식	8,965 8.1	5,674 4.7	8,238 5.8	5,496 3.3	8,893 9.4	8,388 4.3
	- 기타	19,088 17.4	17,660 14.6	19,271 13.5	22,396 13.6	28,234 10.4	28,706 14.6
	대출	35,346 32.0	38,342 31.8	40,690 28.5	43,544 26.5	45,125 24.1	45,329 23.1
	부동산	9,618 8.7	9,500 7.9	9,258 6.5	9,039 5.5	9,052 4.8	8,885 4.6
	소계	95,132 86.3	99,813 82.7	116,498 81.5	132,637 80.8	152,023 81.1	160,351 81.7
	비운용자산	10,442 9.5	12,846 10.6	15,782 11.0	18,458 11.2	20,574 11.0	20,935 10.6
	특별계정	4,722 4.3	8,071 6.7	10,754 7.5	13,128 8.0	14,764 7.9	15,058 7.7
	총 자산	110,295 100.0	120,730 100.0	143,034 100.0	164,223 100.0	187,362 100.0	196,344 100.0

주 : 1) 하단의 수치는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현·예금에는 신탁, 예치금 등을 포함, 기타유가증권에는 수익증권, 출자금, 해외유가증권 등이 포함됨.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 마. 경영효율

- FY2003 보험금지급률은 수입보험료의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2.2%p 증가된 61.3%를 기록함.
  - 2004년 8월말 보험금지급률은 전년 동기간 대비 13.1%p 감소된 56.9%에 달하였는데, 이는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보험금 감소와 퇴직보험의 지급보험금 감소(16.1%)에 기인함.
- 실효계약률은 FY2001을 저점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여 FY2003의 실효계약율은 FY2000 수준(16.0%)으로 회귀함.
  - 그러나, 2004년 8월말 가계신용 및 노동시장 불안으로 인한 생계형 실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의 해약 방지 노력으로 전년 대비 1%만 감소하는 것에 그쳐 실효계약률은 6.9%에 달함.
- 2004년 8월말 현재 특별계정을 제외한 총자산에서 운용자산이 차지하는 자산운용률은 미상각신계약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0.8%p 증가한 88.5%를 기록함.
- FY2003 생명보험의 계약유지율은 13회차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해약 증가로 전년대비 5.7%p 하락한 73.6%를 기록함.
  - 다만, FY2003 하반기 이후부터 보험회사의 유지관리 강화로 보험계약 유지율이 다소 개선됨.
  - 25회차 계약유지율은 FY2000부터 꾸준히 상승해 왔으며, FY2003은 전년 대비 3.1%p 증가한 62.6%를 기록함.

- 보험설계사 신규등록 후 1년 이상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의 비율인 13월차 보험설계사 정착률은 FY2003년 31.1%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신규등록 설계사수와 13월차 설계사수가 같은 비율만큼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13월차 설계사 수는 크게 감소했음.
- 2003년 9월 방카슈랑스 시행후 보험모집조직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설계사 수는 전년 대비 5.8% 감소함(FY2002 151,029명→FY2003 142,268명).
- 보험설계사 정착인원의 경우 경기침체, 방카슈랑스, 법인대리점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함(-16.5%p).

<표 III-15> 생명보험 경영효율 주요 지표

(단위 : %)

구 분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2004. 4~8	
보험금지급률	81.9	75.9	72.5	59.1	61.3	56.9	
실효해약률	20.5	16.0	14.1	14.8	16.1	6.9	
자산운용률*	86.3	88.6	88.1	87.8	88.1	88.5	
유지율	13회차	63.9	71.4	79.0	79.3	73.6	-
	25회차	42.3	54.0	59.6	61.6	62.6	-
설계사정착률(13)	22.7	22.4	28.8	31.2	31.1	-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2) 실효해약률 = 효력상실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3) 유지율 = 유지계약액/ 신계약액  
 4) \*는 일반계정의 수치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바. 판매채널

- FY2003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모집형태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방카슈랑스 채널은 일시납 보험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극적 판매 공세로 보험설계사를 제외한 기존채널을 크게 앞섬.
  - 이는 일시납상품을 중심으로 한 방카슈랑스 채널의 납입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월납 중심의 다른 채널과의 수평비교에 다소 무리가 있음.
  - 반면, 보험설계사의 판매 비중은 방카슈랑스 채널의 적극적 판매전략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 대비 5.8%p 감소한 40.0%를 기록함.
  - 또한 설계사들의 주력상품인 중신보험의 신계약 성장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표 III-16>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초회 수입보험료 비중 추이

(단위 : %)

구 분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2004. 4~8
회사직급	39.3	34.2	55.7	46.0	9.9	7.8
보험설계사	58.7	62.9	41.6	45.8	40.0	41.6
대리점	2.0	2.9	2.6	7.0	7.4	8.0
중개인	-	-	-	-	0.0	0.0
텔레마케팅	-	-	-	-	2.6	0.3
온라인	-	-	-	-	0.1	0.0
방카슈랑스	-	-	-	-	39.7	42.2
기타	0.0	0.0	0.1	1.3	0.3	0.0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 2004. 8월말 현재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모집형태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규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수요 감소, 텔레마케팅, 온라인 등 기타채널의 비중축소로 방카슈랑스·설계사 채널이 주요 채널로 부각됨.
  - 특징적으로 퇴직보험 수요의 감소에 따른 직급비중의 최저 감소와 방카슈랑스 초회보험료 감소 및 기타 수입보험료 증가로 인해 채널 양극화 현상을 보임.
  - 보험설계사의 판매 비중은 방카슈랑스 채널외 기타 채널의 비중 축소로 회복세를 보였으나 실제로 보험설계사에 의한 초회보험료의 증가는 FY2004 1/4분기 시점에서 2.3%에 달함.
  - 이는 최근 설계사 조직의 소폭 확대에 비추어 정예화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
- FY2003 경영효율성과 판매채널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임직원과 보험설계사의 수, 대리점의 수는 감소하였음.
  - 대부분 국내사들이 영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의 수를 감소시키고 있음.
- 전통 채널에 의한 마케팅 강화에 따라 임직원 수는 소폭 감소(0.4%)했으나, 보험설계사의 수는 소폭 증가(0.7%)했음.
  - 대형 3사는 전년 동기 대비 보험설계사 수를 7.5% 늘린 반면, 외국보험사는 7.1% 감소시킴.
  - 대형 3사는 전년 동기 대비 대리점 수가 20.0% 감소된 반면, 중소형사는 대리점 수가 15.6% 증가됨.

**<표 III-17> 생명보험 모집조직 추이**

(단위 : 명, 개)

구 분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2004. 4~8
회사직급	35,663	31,851	28,572	26,726	26,172	26,289
	-7.9	-10.7	-10.3	-6.5	-2.1	-0.4
보험설계사	241,429	214,793	171,505	151,064	143,498	145,352
	-1.9	-11.0	-20.2	-11.9	-5.0	0.7
대리점	7,789	6,017	7,001	7,267	7,211	7,132
	-29.9	-22.8	16.4	3.8	-0.8	-5.4

주 : 하단은 전년 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 각 월호.



### 3. 손해보험

#### 가. 원수보험료

- FY200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내수부진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종목에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3.7% 성장에 그침.
  - 특히, 자동차 보험시장은 시장의 포화 현상과 더불어 보험료 인하 경쟁 등으로 과열되면서 사실상 제로 성장인 0.6%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함.
  - 반면, 특종보험과 장기보험에서는 각각 8.0%, 7.1%의 성장률을 보이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증가에 기여함.
  - FY2003 장기손해보험 시장은 8조 5,794억원의 보험료 규모로 전년 대비 7.1% 성장하면서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 이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질병보험(28.8%) 및 상해보험(7.0%)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장기손해보험이 꾸준한 성장한 결과임.
- 2004년 4~8월 손해보험 전체 원수보험료는 내수부진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꾸준한 성장과 더불어 자동차보험 등에서 전년도 저성장률에 대한 상대적 성장으로 인하여 9.0%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lt;표 III-18&gt;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2004. 4~8
국내 경제	경상GDP (10억원) <sup>1)</sup>	529,500	578,665	622,123	684,264	721,346	370,972
	증 가 율	9.4	9.3	7.5	10.0	5.4	8.7 <sup>5)</sup>
손보 산업	보 험 료 <sup>2)</sup>	148,149	168,617	186,959	206,129	213,782	93,801
	증 가 율	3.9	13.8	10.9	10.3	3.7	9.0

주 : 1) CY 기준(2000년 기준 경상가격)이며, 2004년 4~8월은 2/4분기 누적수치임.

2) FY1999부터 특별계정이 포함된 실적임.

3) 부수사업이 포함된 실적임.

4) 전년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5) CY2004 상반기 경상 경제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및 [www.bok.or.kr](http://www.bok.or.kr).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1) 종목별 원수보험료

- FY2003 자동차보험(37.2%)과 장기손해보험(40.1%)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두 보험종목의 성장추세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1.2%p 감소하였으며,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도 다소 감소하였음.
  - 반면, 장기손해보험의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1.2%p 증가하였으며, 특종보험도 점유율이 증가함.
- 2004년 4~8월에는 자동차보험의 요율인상과 장기손해보험의 질병, 상해부문에 대한 꾸준한 수요 증가로 9.0% 성장률을 기록함.

<표 III-19>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3			2004. 4 ~ 8		
	보험료	증가율	구성비	보험료	증가율	구성비
화 재	3,160	-1.8	1.5	1,228	-9.7	1.3
해 상	5,242	-6.5	2.5	2,249	-5.4	2.4
자 동 차	79,606	0.6	37.2	35,433	9.1	37.8
보 증	9,419	0.6	4.4	3,869	-3.0	4.1
특 종*	18,073	8.0	8.5	8,424	10.9	9.0
해외원보험	628	11.4	0.3	299	56.9	0.3
장 기	85,794	7.1	40.1	38,501	10.7	41.0
개인연금	6,873	1.3	3.2	2,873	1.2	3.1
퇴직보험	4,949	12.4	2.3	925	98.5	1.0
합 계	213,743	3.7	100.0	93,801	9.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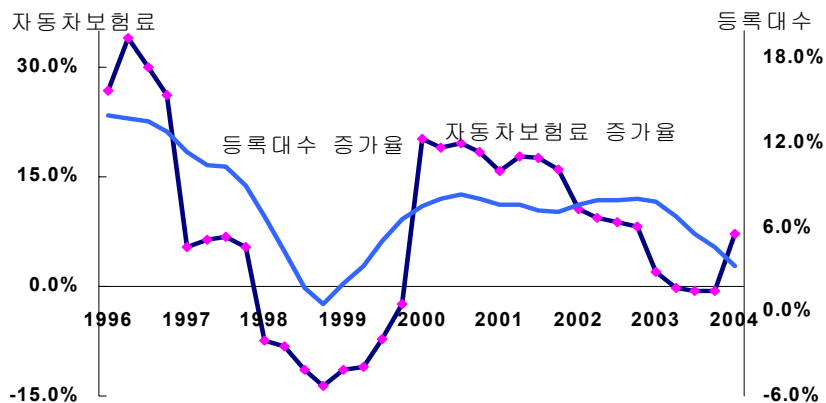
주 : 1) \*는 기술, 책임, 상해, 종합, 기타 특종보험, 부동산권리보험의 합계임.  
 2) 부수사업이 제외된 실적임.  
 3)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가) 자동차보험

- FY2003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7조 9,606억원을 나타냈으며,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4/4분기 실적이 다소 회복되어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음.
- 자동차보험 시장내 가격경쟁 격화, 내수 침체에 따른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둔화에 기인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다가 손해를 악화로 인한 보험요율 인상으로 소폭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04년 4~8월에는 보험요율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9.1% 성장하였음.
-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이 꾸준히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요율 인상 조치가 FY2003 하반기부터 진행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전년도 저성장에 대한 상대적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III-1> 자동차보험시장 성장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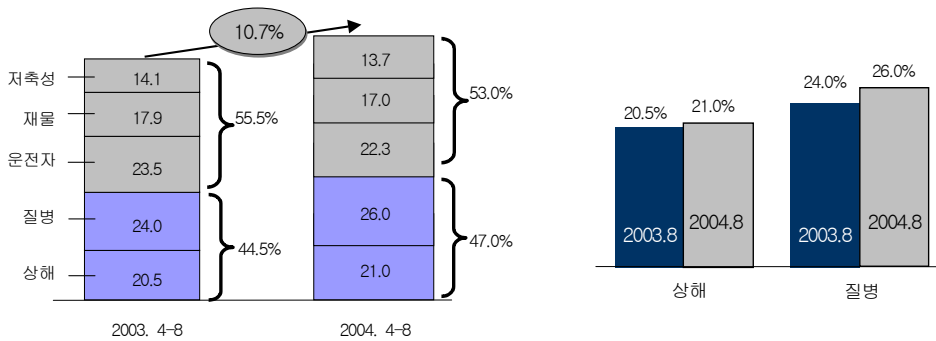


#### 나) 장기손해보험

- FY2003 장기손해보험은 전년 대비 7.1% 성장한 8조 5,794억원을 기록했음.
- 경기불황으로 인한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질병보험(28.8%) 및 상해보험(7.0%)에 대한 수요 증가로 장기손해보험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FY2002에 7.8% 감소하였던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FY2003에는 5.7% 증가로 반전되었으며,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인해 장기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19.2% 급증하였음.
- 2004년 4~8월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3조 8,501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7%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이는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의 판매 급증 때문임.

<그림 III- 2> 장기손해보험 동향



- FY2003 개인연금보험의 원수보험료는 6,873 억원으로 1.3%의 저성장율을 기록하여 사실상 정체되어 있음.
- 2004년 4~8월의 개인연금보험은 1.2%의 성장률을 기록함.

다) 보증보험

-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FY2003 9,419억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으며, 2004년 4~8월의 경우 3.0%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음.

- FY2002 급성장하였던 상업신용, 할부신용, 신용카드신용 등 신용보험 시장 성장이 둔화되었는데 이는 가계부실 심화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가 강화되어 대출용 보증보험 판매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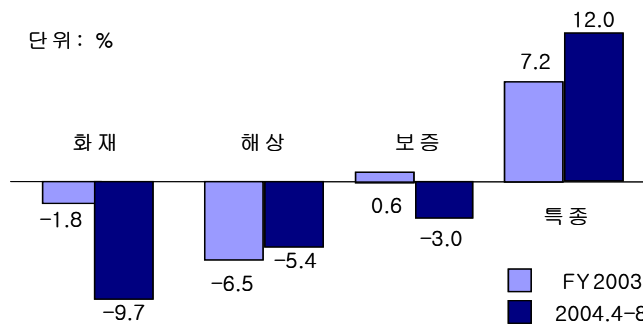
#### 라) 일반손해보험

- 화재보험의 경우, FY2003 원수보험료 3,160억원으로 1.8%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냄.
  - 효율인하 조정과 더불어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종합보험 등으로 계약이 이전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2004년 4~8월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9.7%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음.
- FY2003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대비 6.5% 마이너스 성장한 5,242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04년 4~8월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5.4%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FY2003의 경우 9.11 테러사태로 급상승하였던 효율이 안정화되면서 항공보험은 전년대비 마이너스 30.7% 감소한 반면,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선박보험 11.3%, 적하보험 6.8%, 운송보험 1.6%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특종보험의 경우, FY2003 원수보험료 1조 8,073억원으로 8.0% 성장률을 나타내었고, 2004년 4~8월에는 10.9% 성장률 및 9.0% 점유율을 보이면서 전년 동기간에 비해 성장률이 높게 나타남.
  - FY2003의 경우 효율인하 조정과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내수 및 투자부진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종합보험 7.7%, 책임

보험 8.2%, 상해보험 11.3%, 기술보험 4.8% 등 전년도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음.

- 2004년 4~8월에는 배상책임보험과 상해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전년 동기간 보다 높은 10.9% 성장률을 기록함.

<그림 III-3>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 2)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03 손해보험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0.6%, 중소형사는 24.0%를 나타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격차가 더욱 심화됨.

- 국내 중소형사는 온라인채널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전통채널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04년 4~8월에는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23.7%를 기록함.

- 한편, 전업사의 시장점유율이 FY2003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4.7%를 기록한 반면, 2004년 4~8월에는 전년도말 대비 0.4%p 하락한 4.3%를 기록함.

-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강화에 따라 대출용 보증보험 판매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표 III-20> 손해보험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

연도	상위 4사	중소형사	일반사계	전업사	외국사
FY1999	65.6	30.0	95.6	4.0	0.4
FY2000	68.0	27.9	95.9	3.7	0.4
FY2001	68.2	27.3	95.5	3.9	0.6
FY2002	70.0	24.6	94.6	4.7	0.7
FY2003	70.6	24.6	94.6	4.7	0.7
2004. 4~8	71.0	23.7	94.7	4.3	1.0

주 : 1) 일반사계에는 교보자동차, 교원나라, 다음다이렉트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얄, 퍼스트 아메리칸 권원보험 등 5개사임.

2) 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나. 수지상황

### 1) 수지차

- FY2003 전체 손해보험회사는 8,998억원의 총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년도에 이어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시현함.
  - 이는 보험영업적자규모의 확대, 자산운용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투자지출규모의 감소로 인한 투자영업이익의 개선 때문임.
  - FY2003 손해보험회사는 증시호황에 힘입어 전년 대비 6,091억원 증가한 1조 4,591억원의 투자영업이익을 기록하였음.



- FY2003 보증보험을 제외한 일반 손보사의 총영업이익은 6,581억원의 이익을 기록하여, 전년도 8,027억원에 미치지 못함.
  - 보증보험의 경우 보험영업이익규모는 감소하였으나 투자영업이익 규모의 증가로 총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1,387억원 가량 개선되었음.
- 2004년 4~8월 손해보험회사의 총영업이익은 보증보험의 보험영업이익의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1.1% 감소한 6,719억원을 기록함.
  - 보증보험을 제외할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948억 감소한 4,873억원을 기록함.

**<표 III-21> 손해보험 수지차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총영업이익		
	국내 11개사	보증 보험사	전사	국내 11개사	보증 보험사	전사	국내 11개사	보증 보험사	전사
FY1999	-13,821	-34,783	-48,681	15,113	612	16,409	1,292	-34,170	-32,272
FY2000	-12,628	550	-12,174	7,091	345	7,826	-5,537	895	-4,347
FY2001	-5,967	-6,920	-13,044	15,396	1,099	17,128	9,429	-5,819	4,084
FY2002	-4,090	3,859	210	11,127	-2,828	8,860	7,038	1,030	9,057
FY2003	-8,233	2,484	-5,953	14,268	-66	14,951	6,036	2,417	8,998
2004 4-8	-1,525	1,395	17	5,985	450	6,702	4,460	1,846	6,719

주 : 1) 보험영업이익은 비상위험준비금의 증가를 반영한 수치이며, 전사 실적에는 재보 및 외국사 실적이 포함되었음.

2) 교원나라와 다음다이렉트 보험의 실적은 제외됨.

자료 :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2004. 6.

## 2) 당기순이익

- FY2003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험금 지급 증가 등의 영향으

로 서울보증보험회사를 제외할 경우 3,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64억원 감소하였음.

- 이는 투자영업부문의 이익확대에 불구하고 발생손해액 확대에 따른 보험영업부문의 손실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당기순이익의 감소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FY2003 손해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은 장기보험의 환급금 등의 증가로 15조 5,5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율을 보여 원수보험료 증가율 3.7%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04년 4~8월에는 장기보험의 저축성보험료적립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2.3% 증가하였음.
- FY2003 사업비는 4조 7,203억원이 지출되어 전년 대비 0.4%의 증가한 반면, 2004년 4~8월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4.0% 감소하였음.

**<표 III-22>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사업비,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2004. 4~8
발생손해액	93,297	123,027	131,685	134,670	155,539	63,885
	44.0	31.9	7.0	2.3	15.5	12.3
사 업 비	35,720	37,805	42,400	47,032	47,203	18,579
	5.3	5.8	12.2	10.9	0.4	-4.0
당기순이익	-34,476	-8,166	2,183	3,249	5,635	5,194

주 : 1) 하단의 수치는 전년 또는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율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자산운용 현황

1) 총자산

- FY2003 손해보험회사들의 총자산 규모는 38조 8,229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였으며, 2004년 8월 현재 40조 2,376억원으로 전년 동월말 대비 8.7% 증가함.
- 보험영업 부문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등 투자환경이 개선 되면서 투자영업이익 증가에 기인한 것임.

<표 III-23> 손해보험 총자산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2004. 8
총자산	264,708	280,490	327,267	353,683	388,229	402,376
	18.0	6.0	16.7	8.1	9.8	8.7

주 : 1) 하단의 수치는 전년 또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자산효율

- FY2003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의 자산운용률은 86.4%로 전년대비 1.1%p 증가하였으며, 2004년 8월에는 86.5%로 나타남.
- FY2003 중소형사의 자산운용률은 85.4%, 외국사는 77.0%로 대형사 90.7%보다 낮은 수준이며,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
- 한편, FY2003 총자산수익률은 6.4%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2004

4~8월에는 6.0%를 기록함.

- FY2003의 경우, 저금리 추세에도 불구하고 증시활황에 힘입어 투자 수익이 증가하여 수익률이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음.
  - 2004년 4~8월에는 저금리 지속과 주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0.4%p 감소한 6.0% 기록함.
- 운용자산 수익률은 FY2003 7.6%로 전년대비 0.2%p 감소하였으며, 2004년 4~8월에는 7.0%를 나타내었음.
- 2004년 4~8월의 경우 저금리 지속에 따른 장기채권 금리하락과 경기침체에 따른 주가하락의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0.6%p 하락하였음.

#### <표 III-24> 손해보험 자산운용률 및 자산운용수익률 추이

(단위 : %)

구 분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2004. 4~8	
자 산 운 용 률 <sup>1)</sup>	80.5	80.7	84.5	85.3	86.4	86.5	
수익률	총자산	10.9	6.6	7.8	6.4	6.4	6.0
	운용자산	13.7	8.4	9.5	7.8	7.6	7.0

주 : 1) 자산운용률은 퇴직보험이 제외된 일반계정 실적임.

2) 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3)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 FY2003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총자산의 52.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으며, 대출채권 17.5%, 부동산 8.4%, 현·예금 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FY2003에는 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시활황으로 주식의 보유규

모가 확대되는 특징을 나타냈음.

- 또한, 투자유가증권과 대출채권의 보유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손해보험회사들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자산운용전략이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4~8월에는 저금리와 주가하락 등으로 다른 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대출채권과 장기채권의 보유비중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보험회사들은 준비금 증가와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로 해외유가증권을 포함한 기타유가증권의 보유규모도 확대하고 있음.
- 1999년 4월부터 도입된 퇴직보험을 운용하는 특별계정 자산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FY2003에는 3.3%의 점유율을 차지함.

&lt;표 III-25&gt; 손해보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2004. 8	
운용 자산	현·예금	29,056	28,086	21,483	20,300	18,434	17,169
		11.0	10.0	6.6	5.7	4.7	4.3
	유가 증권	119,287	126,478	171,917	182,821	205,462	215,481
		45.1	45.1	52.5	51.7	52.9	53.6
	- 주식	21,928	17,427	28,241	17,900	29,044	26,043
		8.3	6.2	8.6	5.3	7.5	6.5
	- 채권	58,173	74,865	97,620	122,732	124,573	133,580
		22.0	26.7	29.8	35.3	32.1	33.2
	- 수익 증권	27,100	23,751	29,217	17,295	21,124	22,515
		10.2	8.5	8.9	4.9	5.4	5.6
	- 기타	12,086	10,435	16,839	24,894	30,721	33,343
		4.6	3.7	5.1	6.2	7.9	8.3
	대출 채권	36,267	38,159	45,907	58,569	67,888	71,548
		13.7	13.6	14.0	16.6	17.5	17.8
	부동산	25,783	28,639	31,019	31,232	32,489	32,792
		9.7	10.2	9.5	8.8	8.4	8.1
소계	210,393	221,362	270,326	292,921	324,273	336,990	
	79.5	78.9	82.6	82.8	83.5	83.8	
비운용자산	50,781	52,928	49,426	50,531	51,176	52,668	
	19.2	18.9	15.1	14.3	13.2	13.1	
특별계정	3,534	6,200	7,515	10,231	12,780	12,718	
	1.3	2.2	2.3	2.9	3.3	3.2	
총 자산	264,708	280,490	327,267	353,683	388,229	402,37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FY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경영효율

- FY2003 손해보험회사들의 합산비율은 101.9%, 2004년 4~8월의 경우 99.2%로 사업비율 등이 감소함에 따라 개선되었음.
  - FY2003 손해보험 전체 종목의 합산비율이 3.5%p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율이 상승했기 때문임.
  - 2004년 4~8월에는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율 하락과 사업비율 감소로 합산비율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음.

<표 III-26> 손해보험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2004. 4~8
경과손해율	109.1	82.4	80.9	72.9	77.6	76.9
사업비율	26.4	24.9	26.0	25.5	24.3	22.3
합산비율	135.5	106.9	106.8	98.4	101.9	99.2

주 : 1)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된 실적임.

2) 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3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손해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의 증가는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감소 및 시장 내 경쟁격화로 자동차보험료 수입 감소와 교통사고 증가 및 태풍피해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에 기인한 것임.
  - 특종보험은 태풍피해 등의 영향으로 기타특종과 재산종합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전년 대비 10.3%p 증가한 57.8%

를 기록함.

- FY2003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보험은 보험금 환입에 대한 효과가 소멸되면서 손해율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44.1%를 기록함.
- 2004년 4~8월 손해보험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개선되나,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자동차보험은 FY2003 하반기 이후 기본요율뿐만 아니라 회사별 범위요율의 조정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효과로 손해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장기보험의 지급보험금, 환급금 확대 추세에 따라 손해율이 악화될 것으로 보임.

### <표 III-27>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2004. 4~8
화재보험	61.9	67.1	51.1	54.3	61.7	59.7
해상보험	43.9	46.4	46.0	51.6	57.7	55.4
자동차보험	73.0	73.2	67.6	68.4	76.7	72.0
보증보험	456.0	79.5	208.3	42.0	44.1	35.9
특종보험	56.9	56.8	53.8	47.5	57.8	47.6
해외원보험	63.6	78.9	57.8	50.4	47.5	50.0
장기보험	92.6	90.9	84.2	81.5	82.4	86.4
개인연금	112.6	118.4	117.8	118.7	121.8	118.4
전체	109.1	82.4	80.9	72.9	77.6	76.9
보증제외시	82.5	82.6	76.3	74.3	79.2	78.5

주 : 1)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된 일반계정 실적임.

2) FY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감』, 각 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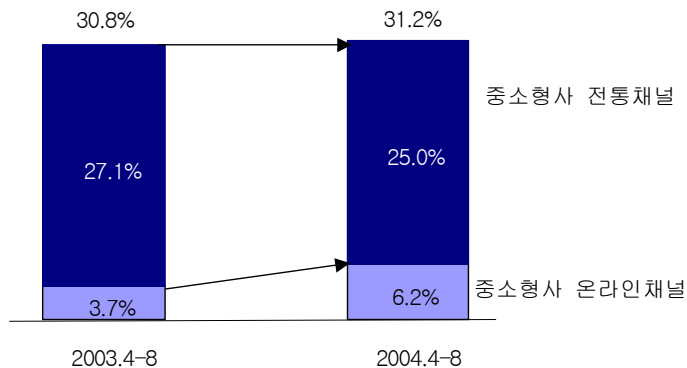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마. 판매채널

- FY2003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중 전통채널의 시장점유율은 경기침체로 인한 저가형 상품 공급전략의 영향으로 감소한 반면, 온라인채널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음.
  - 온라인보험시장은 손해보험회사간 가격경쟁이 격화되면서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저가형 상품의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회계년도 초에 비해 0.5%p 상승한 2.5%를 기록함.
  -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온라인보험시장 점유율은 내수부진에 따른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정체에도 불구하고 회계년도 초에 비해 0.7%p 증가한 5.5%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의 경우, 중소형사들은 온라인채널을 통해 점유율을 크게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채널의 감소로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간 대비 소폭 상승한 31.2%를 기록함.

<그림 III-4> 온라인 채널에 의한 중소형사 성장 효과



- 2004년 4~8월 신채널의 시장점유율은 방카슈랑스와 시장내 가격경쟁 격화에 따른 온라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전년 동기간 대비 1.3%p 증가한 4.2%를 기록함.

**<표 III-28>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2004. 4~8
회사직급	13,044	12,273	16,723	22,179	19,323	8,123
	9.0	7.4	9.1	11.0	9.3	8.7
보험설계사	66,583	78,619	72,880	74,411	74,465	33,386
	46.1	47.7	39.6	36.9	35.7	35.9
대 리 점	64,299	72,209	92,035	102,932	105,607	46,142
	44.5	43.8	50.0	51.1	50.6	49.7
중개인	-	-	-	-	1,791	747
	-	-	-	-	0.8	0.8
TM	-	-	-	-	3,901	1,927
	-	-	-	-	1.9	2.1
CM	-	-	-	-	1,168	532
	-	-	-	-	0.6	0.6
방카슈랑스	-	-	-	-	813	1,387
	-	-	-	-	0.4	1.5
공동인수	598	1,693	2,384	2,019	1,727	633
	0.4	1.0	1.3	1.0	0.7	0.7

주 : 1) 각 하단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3) 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경기침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채널 상품 선호와 장기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설계사조직 확대로 대리점을 제외한 손해보험의 모집조직 생산성(단위당 거수보험료)은 전년대비 하락하였음.

<표 III-29> 손해보험 모집조직 생산성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2004. 4~8
임직원	53.2	53.1	77.6	106.2	91.1	37.9
	-7.9	-0.2	46.3	36.8	-14.1	-9.4
보험설계사	79.8	114.1	127.7	137.1	123.7	51.1
	5.3	43.0	11.9	7.3	-9.8	-3.7
대리점	122.6	135.4	172.7	202.3	219.0	97.5
	3.3	10.4	27.5	17.2	8.3	14.2

- 주 : 1) 각 하단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2)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3) 2002년의 경우, 알리안츠손보, 미쓰이스미토모 실적은 제외되었음.  
 4)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거수보험료/임직원수  
 5) 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설계사 거수보험료/설계사수  
 6)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거수보험료/대리점수

바. 해외재보험 거래

- FY2003 해외재보험 거래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출재보험에서의 적자 축소로 약 2억 3,586억 달러의 적자를 시현하였음.
  - FY2003에 보험사고 증가로 인한 출재보험에서 수입보험금이 증가하여 해외재보험거래의 수지차액이 큰 폭으로 개선됨.
  - 또한, 수재보험의 증가세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수재수지차액 역시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남.

&lt;표 III-30&gt; 해외재보험 거래실적

(단위 : 천달러, %)

구 분		FY1999	FY2000	FY2001	FY2002	FY2003	2004.4~7
수 재	수 지 차	22,491	27,336	31,653	39,551	63,718	36,231
	손 해 율	47.1	49.6	51.9	54.4	47.1	44.7
출 재	수 지 차	226,635	-274,145	-371,407	-490,314	-299,577	-707,487
	손 해 율	114.8	40.7	37.5	42.1	58.7	24.6
순수지차액		249,127	-246,809	-339,754	-450,763	-235,859	-671,256

주 : 손해율은 지급보험금(수입보험금)을 수입보험료(지급보험료)로 나눈 것임.

자료 :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각 월호.